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 공격성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을 중심으로



201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김 준 성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청소년 공격성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천 성 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김 준 성

김준성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23일



위원장 철학박사 주동범



위원 교육학박사 강승희



위원 교육학박사 천성문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10
1. 공격성의 정의	10
2. 부모 학대와 공격성	12
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14
4. 우울과 공격성	16
III. 방 법	18
1. 자료의 수집 및 절차	18
2. 자료의 코딩	21
3. 자료의 분석방법	21
IV. 결 과	25
1.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25
2. 출간오류 검정	26
3. 청소년 공격성의 주요 변인들간의 메타분석	27

4. 모형검증	28
V. 논 의	32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8
부 록	54
1. 분석 대상 논문	54



표 목 차

<표 IV-1> 분석대상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	26
<표 IV-2> 출간오류 검정	27
<표 IV-3> 청소년 공격성 관련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 크기	28
<표 IV-4> 메타분석된 상관행렬	29
<표 IV-5> 청소년 공격성 모형에 대한 적합도지수	30
<표 IV-6> 요인간 경로 계수	31
<표 IV-7>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및 유의성 검증	32

그림 목차

[그림 I-1]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6
[그림 III-1] PRISMA에 근거한 문헌고찰 흐름도	21
[그림 IV-1] 청소년 공격성 경로 모형(수정모형)	30



A meta-path analysis of Variables in Youth Aggression
: Parental Violence, Social Withdrawal, Depressive

Jun Seong Kim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The study look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iolence,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ve, the main variables that affect the aggressiveness of teenager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parental violence and social withdrawal on the aggressiveness of teenagers by exploring the path of adolescent aggression through mediation of emotional depressiv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it appears as an attacking behavior.

For this purpose, meta -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theses and journals of scholarship and doctorate in Korea from 2000 to February 2019. Data analysis used R x64 3.5.3 and R package metaSEM for meta - path analysis of major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veness, and CFI, TLI, SRMR and RMSEA were used for fitness test.

A parental violence, and social withdrawal mediated depressive on adolescent aggress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ta-analysis of the major factors related to youth aggression revealed that social withdrawal-Depressive ($Z_r = .521$),

depressive-aggression ($Z_r = .424$) the variables were as follows: social withdrawal - aggression ($Z_r = .361$), parental violence - depressive ($Z_r = .345$), parental violence - aggression ($Z_r = .272$), parental violence - social withdrawal.

Second, Depressive was found to be mediated in the path of Parental violence and social withdrawal to juvenile aggression.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 main variation, inter-terrestrial meta-analysis, provides an integrated view of relative superiority or relevance to outcomes with somewhat different explanatory power among the main variable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environmental factors (parent abuse, social contraction) mediated depression and affected youth aggression. This can be seen as applying frustration-attack theory to account for youth aggression. Thus, it suggests that managing youth depression can be a more effective strategy than intervening in parent abuse and social atrophy that indirectly affects youth aggression.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eta-analysis of youth aggress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me of the factors among the main variables would have limits that would include some small numbers of researchers, which would require an integrated analysis of more studies, including those not mentioned. Second, since there are limitations that do not fully reflect the conceptual scope and homogeneity of measurement tools for key variables, comparative analysis will be required using the same concepts and measurement tools. Third, the limitations of verifying juvenile aggression by using only some of the aggression-related variables will require an analysis of a hypothetical research model that includes relationships among the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youth aggress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가정, 학교, 사회에서 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욕설이나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건들이 높은 빈도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 또래 괴롭힘, 교사에 대한 폭력 등 심각한 형태의 공격적 행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서미정, 2014).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사회기술의 발달미숙, 부정적인 또래관계,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학업문제, 부적응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또한, 아동기부터 지속된 신체적 공격성의 증가는 아동,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로 이어지고(이혜정 외, 2015), 이는 성인의 우울, 약물중독, 범죄, 가정폭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촉진한다(김민정, 2012; 이수연, 2009).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공격성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이고 많은 이론과 연구 관심을 받아 온 주제다. 공격성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나 정서 및 사고를 말한다(Aronson, 1992; Berkowitz, 1993; Orpinas & Frankowski, 2001). 또한, 유전, 사회 문화, 사회 심리, 상황 및 인지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Calvete & Orue, 2012). 이러한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이론 중 Berkowitz(1993)에 의해 수정·재정립하여 제시된 좌절-공격 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은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본능적 힘이 아니라 외적 조건인 욕구 좌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욕구 좌절이라고 하며 이러한 심리적 긴장 상태는 좌절을 겪게 하는 원천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대신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인 공격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환경 변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국내의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된 환경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가정환경 변인군과 사회환경 변인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가족 이외의 외부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 성장의 토대로써 가정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재엽, 이지현, 정윤정, 2008).

먼저, 청소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가정환경 변인군으로는 부모 방임, 부모 학대, 부부 갈등, 부모스트레스(김현진, 김민, 2016; 박문정, 강지현, 2017; 박혜리, 2019; 신규리, 2015; 이충권, 양혜린, 2017; 정일영, 2019) 등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좌절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학대를 강조하고 있다(신동희, 송현주, 2016).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7)에 의하면 2017

년도 학대피해사례는 22,367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학대 가해자는 친부모가 12,489건으로 55%에 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대 경험의 절반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어 부모 학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핵심적 정서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을 경험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은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학대는 우울, 분노, 보복심,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이아영, 20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학대는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권민정, 박주희, 2015; 김자영, 2014).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게 되면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사회환경 변인군으로는 비행경험, 사회적 위축, 학교폭력 관련 가해·피해 경험, 학업스트레스(위유라, 노충래, 2014; 이순희, 허만세, 2018; 정일영, 2019; 최현주, 신혜진, 2016) 등 다양한 사회환경 변인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는 좌절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강조하고 있다(공미정, 이동형, 2017; 이순희, 허만세, 2018; 정명희, 2017).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과 수동성, 불안, 긴장 등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와 과잉 통제된 행동을 만들어 부정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이러한 점은 나아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나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며,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좌절은 공격적인 행동과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경, 조민규, 2014; 윤선아, 2016).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 학대 연구에서 매개 변인으로 우울이 제시된 연구(김재엽, 남보영, 2012; 박영숙, 임안나, 2017; 정익중, 이지언, 2012)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상관이 제시된 연구(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박애리, 2014; 유현주, 2014; 최정아, 2014) 등 청소년 공격성과 환경변인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매개 변인 또는 관련성 높은 변인으로 우울이 제시되고 있다. 우울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며, 특히 신체적·심리적·사회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급격히 우울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소지가 높다. 또한, 성인과는 달리 청소년의 우울은 주로 공격적인 행동, 신체 증상, 짜증, 분노로 표현되는 행동상의 문제를 나타낸다(김수정, 정익중, 2013; 정익중, 이지언, 2012;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즉, 우울은 청소년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외부환경으로부터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외부환경은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환경 변인 중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모 학대 및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매개로 청소년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김옥수, 2018; 유현주, 2014; 정일영, 2019). 그러나 청소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한 개별적인 검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좌절을 일으키는 변인을 가정환경 변인군과 사회환경 변인군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또한, 앞서 제시한 주요 변인들이 청소년 공격성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설명력이 다소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상대적 우위성이나 관련성

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좌절을 일으키는 가정·사회환경 변인군으로 주목되고 있는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이 우울과 매개하여 상호유기적으로 어떻게 관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통합한 메타경로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메타분석은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으로 낱낱의 연구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수의 개별적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Glass, 1976). 더욱이 메타경로분석은 주요한 연구 데이터를 종합 재분석 하는 메타분석과 연구모형을 타당화 하는 구조방정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단일의 주요 연구에서 검증되기 쉽지 않은 보다 포괄적이고 복잡한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Viswesvaran & Ones,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부모의 학대 및 사회적 위축, 우울이 청소년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좌절-공격이론을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 학대 및 사회적 위축을 청소년 공격성의 원인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변인인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개인변인인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주요 요인들이 청소년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요인과 개인요인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공격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또한, 비슷한 연구들이 반복되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향후 청소년 공격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개입과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으로 채택된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의 변인 간 효과크기 및 청소년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공격성을 다룬 논문들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청소년 공격성 변인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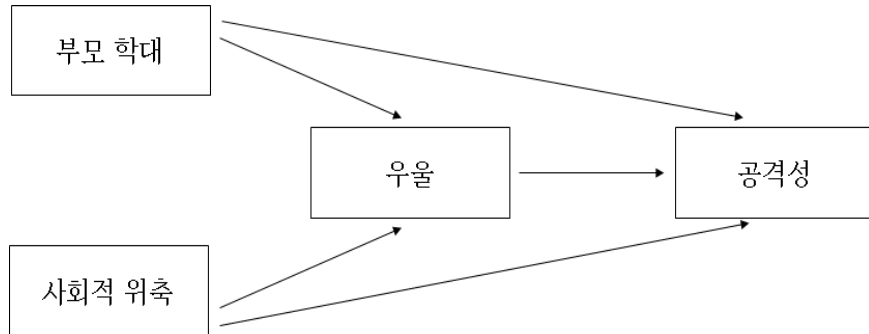
연구문제 3. 메타분석을 통해 계산된 변인 간의 주요 값들을 바탕으로 가설적 연구모형은 어떠한가?

3-1.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3-2.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3-3.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통해서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기초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I-1]와 같다.



[그림 1-2]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가. 부모 학대

부모의 학대는 부모가 자녀를 부적절하게 대하는 양육행동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 혹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의도적인 해를 입히고, 신체적 손상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자녀의 행동에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허묘연, 2000).

본 연구에서 부모학대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작위적인 행동과 보호자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거나 적절한 돌봄

을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불안, 공포, 우울감 및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며(Rubin & Coplan, 2004), 청소년기 내재화된 정서 문제 중 하나로 주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이봉주 외, 2014).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수줍음과 위축됨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다. 우울

우울이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력감을 포함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이다(김성일, 정용철, 2001).

본 연구에서 우울은 청소년이 평소에 경험하는 삶에 대한 관심의 철회,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정의한다.

라. 공격성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지닌 물리

적·언어적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사고, 정서, 행동이라고 정의된다(이은아, 천성문, 2013).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외현적인 행동 특성과 그 반응의 효과를 중심으로 반응자의 특성 및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까지 포함시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의 정의

공격성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상이고 많은 이론과 연구 관심을 받아온 주제다. 공격성은 본능, 개인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 일상습관 등 관찰할 수 있는 신체·언어적 특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나 의도 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모호하고 중복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격성을 정의내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격성을 개인 내면의 성격적 특성으로 타인에게 유해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행위이며(Buss, 1966),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Feshbach, 1967). 그리고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신체·심리적인 것을 포함한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Bandura, 1973). Berkowitz(1974)는 공격성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본능적 힘이 아니라 외적 조건인 욕구 좌절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개체나 사람을 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사고와 정서라 정의하였다(이은아, 2011).

이상과 같이 공격성에 대한 정의에는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포함되므로 공격성의 의도는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개인의 공격 의도나 행동 결과, 사회적 조건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이론 중 Berkowitz(1993)에 의해 수정·재정립하여 제시된 좌절-공격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Dollard(1939)의 고전적인 좌절이론에서는 공격성을 욕구충족이 좌절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행동으로 이해한다. 즉, 욕구가 좌절되면 될수록 더 강한 공격본능이 작용하여 공격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행동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공격행동자체에 대한 강화가 없을 경우에는 공격행동이 억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좌절이론의 관점은 이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재검증되었다.

고전적 좌절이론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자들은 좌절을 가져다 준 사람의 권위, 고의성, 도덕적 지침과 같은 요인이 좌절상황에서의 공격행동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Cohen, 1988; Dodge, 1980).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연관되어 Berkowitz(1962)는 후기 좌절이론으로서의 공격성이론을 성립하게 된다. 그는 좌절과 공격행동을 연결시키는 중간매개로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공격행동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Berkowitz(1965)는 고전적 좌절이론에 대해 좌절이 항상 공격을 이끌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정된 좌절-공격 가설에서 Berkowitz(1989)는 좌절은 부정적 정서를 야기시키고 부정적정서의 강도에 따라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공격적 경향성이 발생하는 것은 외부적 스트레스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정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좌절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혐오적인 사건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전적인 좌절이론이 환경요인과 공격행동의 출현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비해 Berkowitz(1989)는 환경요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즉, 정서요인을 과정을 거쳐 공격행동으로 바라봄으로써 환경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인간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두 요인을 전제만 했을 뿐 두 요인이 어떤 기제로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좌절-공격이론에서는 좌절 경험이 항상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좌절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이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이 곧 좌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부정적인 심리상태로 가지게 되고, 직·간접적인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이 곧 좌절을 경험하고 좌절경험은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어 공격성으로 표출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가정환경 변인군에서 주요 변인으로 채택된 부모학대와 사회환경 변인군에서 주요 변인으로 채택된 사회적 위축이 부정적 감정인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 학대와 공격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1년도 미국의 소아과학회에서 ‘피학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주제로 학회가 열렸고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19세기 말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점차 의학이나 정신건강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Chaffin, 2006).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며, 학대가 단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해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이를 개념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우발적인 사고를 제외한 부모나 보호자의 의도적

행위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라 정의하였다(Olsen, Kemper, & Jackson(1962). 국내의 경우에도 광의적 개념으로 아동학대를 정의하는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아동학대란 비록 의도된 행위가 아닐지라도 부모 혹은 다른 양육자가 아동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하고자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모두 포함한다(Gilbert et al., 2009).

이상과 같이 부모학대에 대한 정의에는 신체적 상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점차 정신적 가혹행위나 유기나 방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학대의 경험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핵심적 정서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 그리고 고통스러운 외상 경험이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길준, 2018; 이영애, 2018; 정일영, 2019; 조민경, 조한익, 2019). 이는 부모학대와 공격성의 관련성은 부모행동에 대한 모델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모의 행동을 무섭고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모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역시도 그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공격행동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가 될 경우도 높다고 하였다(연은모, 2018, 이지혜, 강민주, 2018; 채미경, 김현숙, 2018; 홍

성초, 조운오, 2019). 부모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피해 경험이 많다는 것은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김현진, 김민, 2016). 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폭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학교폭력상황에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김재철, 최지영, 2011).

이처럼 학대의 피해는 예측할 수 있는 즉각적인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뛰어넘어 다양한 부적응적 반응행동을 낳는다. 학대와 공격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은 공격성의 발달요인으로 기능하여, 청소년이 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폭력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재철, 최지영, 2011; 이아영, 유서구, 2011).

종합해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게 되면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서 긴장, 과도한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등의 모습을 보이고, 관계형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사회적 또는 정서상 위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수립할 자신감이 결여되고 위축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는

개인의 행동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Watson & Nesdale, 2012). 그동안 사회적 위축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명확한 틀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 행동억제, 고립, 과묵함 등의 여러 용어들과 호환되어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위축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려는 시도에 따라서 사회적 위축을 혼자 있는 상태에 대한 용어들 즉, 수줍음, 행동억제, 고립, 과묵함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하는 관점이 우세하다(Coplan & Rubin, 2004).

이렇듯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특정 상황에서 혼자 있으려 하거나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기이해를 갖고, 높은 우울, 불안을 호소하면서 대인관계, 행동문제, 또래거부 등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또한, 사회적 위축이 한 번 형성되면 그것은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부정적인 발달상의 경로를 형성하는데 특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은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Stewart & Colan, 1995; Rubin, Coplan & Bow 2009).

최근 일련의 연구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Bell-Dolan, Reaven, & Petterson, 1993; Boivin, Hymel, & Bukowski, 1995; Rubin & Coplan, 2004)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및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문제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꾸준히 보고해 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그들의 비전형적인 태도로 인해 또래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에서 고립, 거부, 무시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긍정적인 발달적 기회들을 놓치게 된다(이봉주 외, 2014; Bowker & Raja, 2011; Bowker, Rubin, & Coplan, 2011).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위축된 성격은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공격성에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설명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대개 위축된 아이는 자존감이 낮으며 아무도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또래의 업신여김과 거부를 초래하여 또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될 확률을 높게 만든다고 주장했다(정하은, 전종설, 2012).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청소년 외로움 현상’(Kurdek & Krile, 1982)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발달 과업의 수행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인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적 위축으로 인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나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며,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좌절은 공격적인 행동과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4. 우울과 공격성

우울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며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다. 특히 기대했던 일이 좌절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 우울감은 더욱 심해짐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우울의 정의에 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슬픔, 좌절, 무망감 등을 경험하는 마음의 병을 우울이라고 한다(Beck, 1976). 또, 우울이 우울한 기분, 무력감, 무기력, 절망, 식욕저하,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한다고 하였다(Radloff,

1977). DSM-5에서는 우울에 대해, 우울감과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이 핵심 증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 진단기준은 성인의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다. 주요 우울증 진단기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스러운 기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우울과 공격성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증상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은 화를 더 잘 내며 성급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Wolff & Ollendick, 2006). 또, 우울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내며(김경은, 2003), 우울과 공격성 간의 관련이 매우 높으며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정현임, 2005). 또,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울정서가 우울감과 외로움, 무망감, 공허함 등이 공격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병선 외, 2017).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환경으로 인한 좌절 경험 이 부정적 감정 중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있다(김옥수, 2018; 이혜진, 2017; 우수정, 2017; 유현주, 2014; 진미선, 2016). 이는 앞서 논한 좌절 경험을 만드는 부모 학대 및 사회적 환경이 좌절을 주고 이는 부정적 감정, 즉 우울로 연결되어 공격성으로 표출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울은 청소년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 외부환경으로부터 매개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경험을 하게 하는 환경 변인을 가정 환경 변인군과 사회환경 변인군으로 구분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환경 변인인 부모 학대 및 사회적 위축이 좌절을 만들고 이는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로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밝히고자 한다.

Ⅲ. 방 법

1. 자료의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들을 메타경로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격성’,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연구들 중 메타분석을 위한 연구들을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System Reviews Meta-Analysis) flowchart 의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Moher, Liberati, Tetzlaff, & Altman, 2009)에 참고하여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들 중 최소한 2개 변인간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 통계적으로 수량화하여 효과크기를 변환하기 어려운 문헌고찰적 연구, 사례 연구 등 질적 연구들과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한 연구들을 분석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메타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연구에 필요한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제시된 연구들 중 효과크기 계산을 위해 변인간 상관계수와 사례수가 제시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경로분석을 위해서는 등간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를 수량적인 형태로 제시한

연구들 중 효과크기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t값과 F값 등을 제외하고 상관 계수 값이 제시된 연구들만 포함하였다.

셋째,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으로 선택된 경우, 관련 변수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논문을 선택하였고, 변수들이 동일한 경우 출판논문인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시기를 한정 한 이유는 최신 연구들을 통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최근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연구논문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 18편, 학술지 30편으로 총 48편이 선정되었다. PRISMA에 근거한 문헌고찰 흐름도는 [그림 III-1]과 같다.



전자데이터베이스에서 국내연구 검색 Key Word : ‘청소년’, ‘공격성’,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으로 최소 2개 변인 간 조합하여 검색
총 5,034 편



일차 중복 연구 배제 후 제목과 초록 검토 - 주요 변인과 관련 없는 연구 배제 - 대상이 모호하거나 부적합한 연구 배제
총 3,242 편



전문 검토 - 최소 2개 변인 간 관계연구 선정 - 학위 및 학술지 중복 시 관련 변수가 포괄적인 연구 선정 - 상관 및 표본제시가 없거나 수량화가 불가능 한 연구 배제 - 원문접근이 불가능한 연구 편 배제
총 823 편



최종 분석 논문 선정
총 48 편 (학술지논문 30편, 학위논문 18편)

[그림 III-1] PRISMA에 근거한 문헌고찰 흐름도

2. 자료의 코딩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분석하기 위해 코딩표를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자료를 논의한 다음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코딩항목으로는 ID, 논문제목, 연구자명, 연구대상, 출판년도, 출판형식, 각 변수, 사례수, 상관계수 등이 있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청소년 공격성 모형을 메타경로분석 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 연구들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적용하고 상관계수의 평균효과크기를 구함으로써 청소년 공격성 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들을 메타경로분석하기 위해 R x64 3.5.3 및 R package인 metaSEM을 사용하였다.

1) 출간오류 검정

출간오류는 메타분석에서 잠정적으로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들로부터 얻은 결과가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연구들이 포함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다를 경우 출간오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이 출판된 연구물의 결과만을 종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출간오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효과 크기-안정성 계수(fail-safe N)의 값은 클수록 메타분석을 통하여 구한 효과 크기의 추정값이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안정성 계수 값이 5k+10보다 클 경우 메타분석을 통하여 구한 평균 효과 크기의 유의하다고 판단한다(Rosenthal, 1979).

2) 효과 크기 산출 및 해석

메타분석의 결과는 효과크기(effect size)로 설명되는데, 효과크기는 메타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위이다.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척도를 가진 경우에는 그 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해 동일 척도로 바꾸어주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표준화된 크기를 효과크기라 하며, 본 연구에서의 효과크기는 관계의 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공격성 관련 변인 간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하기 위해 각 논문들로부터 얻은 통계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메타분석에서 기준 통계치로 사용하는 계수인 상관계수 r 을 추출하고 Fisher가 제시한 표준화된 상관계수 (Zr)로 변환하였다.

$$ES_{Zr} = .5 \ln \left[\frac{1+r}{1-r}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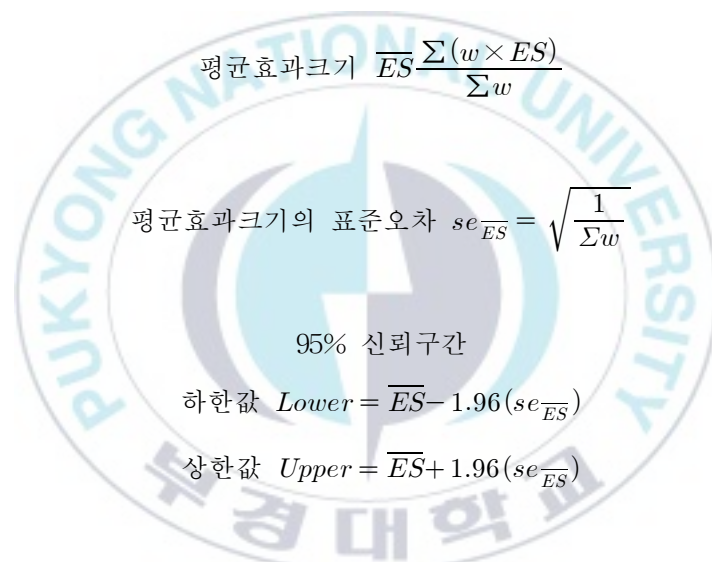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분포는 치우친(비대칭)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계수 r 을 Fisher가 제시한 Z -변환을 통해 정규분포에 가까운 대칭분포를 만든 후에 Z 값을 가지고 상관계수의 병합과 그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오성삼, 2002).

또한, 다양한 수준의 개별연구에 대해 보다 안정된 통계치를 얻기 위해 Fisher's Zr 값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사례수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과 표준오차의 역수를 적용한 역분산가

중치(inverse variance weigh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김동배, 손의성, 2005).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정된 가중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역분산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상관계수(Zr)로 변환된 상관계수의 역분산 가중치는 $N-3$ [N : 사례수] 이다(오성삼, 2002).

평균효과크기, 평균효과크기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평균효과크기 $\overline{ES} = \frac{\sum(w \times ES)}{\sum w}$

평균효과크기의 표준오차 $se_{\overline{ES}} = \sqrt{\frac{1}{\sum w}}$

95% 신뢰구간

하한값 $Lower = \overline{ES} - 1.96(se_{\overline{ES}})$

상한값 $Upper = \overline{ES} + 1.96(se_{\overline{ES}})$

본 연구에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의 해석은 .10 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25 전후의 경우 중간효과크기, .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보았다(Cohen, 1988).

작은 효과크기 $ESr \leq .10$

중간 효과크기 $ESr = .25$

큰 효과크기 $ESr \geq .40$

3) 모형검증

메타분석으로 도출된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청소년 공격성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합동상관행렬(pooled correlation matrix)을 사용하였고, 메타분석의 특성상 개별 연구 간 이질하다는 가정 하에 랜덤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 TLI, SRMR,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TLI는 0.90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0.95 이상이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SRMR는 .05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고, .08이하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RMSEA는 0.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이고, .08 이하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10 이상일 경우 모형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4) 경로계수 유의성 검증

우도(likelihood) 기반 통계량으로 경로계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할 경우에는 경로계수의 추정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보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로계수에 대한 신뢰구간(lbound, ubound)이 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로계수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요인 간 경로계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성모, 2018).

IV. 결 과

1.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들을 메타분석 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논문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8편이 최종분석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와 같다.

<표 IV-1> 분석대상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

항목	분류	빈도	백분율
출판년도	2000~2010	5	10%
	2011~2019	43	90%
출판형식	석·박사 학위논문	18	37%
	학술지	30	63%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출판된 연구가 5편(10%), 2011년에서 2019년까지 출판된 연구가 43편(90%)이었다. 출판형식에 따라 살펴보면 학술지 논문이 30편(63%)으로 가장 많았고, 석·박사학위 논문은 18편(37%)이었다.

2. 출간오류 검정

분석된 논문의 편향 정도를 확인하고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출간오류를 검증하였다. 효과 크기-안정성 계수(fail-safe N)의 값은 클수록 메타분석을 통하여 구한 효과 크기의 추정값이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안정성 계수 값이 $5k+10$ 보다 클 경우 메타분석을 통하여 구한 평균효과 크기의 유의하다고 판단하며, 출간오류 검정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출간오류 검정

변인	K	Rosenthal's Fail-safe N
부모 학대-사회적 위축	7	457
부모 학대-우울	11	6246
부모 학대-공격성	12	6221
사회적 위축-우울	8	18050
사회적 위축-공격성	8	2053
우울-공격성	19	36831

각 변인 안정성 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학대-사회적 위축 ($457 > 35+10=45$), 부모 학대-우울 ($6,246 > 55+10=65$), 부모 학대-공격성 ($6,221 > 60+10=70$), 사회적 위축-우울 ($18,050 > 40+10=50$), 사회적 위축-공격성 ($2,053 > 40+10=50$), 우울-공격성 ($36,831 > 95+10=105$)로 모두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공격성의 주요 변인들간의 메타분석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간의 평균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청소년 공격성 관련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 크기

변수	연구 (k)	인원 (n)	평균 상관계수 (Zr)	가중 표준편차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 학대-사회적 위축	7	9,362	.122	.033	.056	.187
부모 학대-우울	11	14,738	.345	.028	.290	.401
부모 학대-공격성	12	19,876	.272	.015	.242	.303
사회적 위축-우울	8	17,475	.521	.016	.489	.553
사회적 위축-공격성	8	6,418	.361	.024	.314	.409
우울-공격성	19	28,392	.424	.022	.380	.468

각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평균효과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효과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서는 사회적 위축-우울($Zr=.521$), 우울-공격성($Zr=.424$)이었고,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서는 사회적 위축-공격성($Zr=.361$), 부모 학대-우울($Zr=.345$), 부모 학대-공격성($Zr=.272$), 부모 학대-사회적 위축($Zr=.122$)순으로 분석되었다.

4. 모형검증

본 연구에서 청소년 공격성 원인요인들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원인요인 및 매개요인을 메타분석하였으며, 메타분석을 통해 얻어진 상관행렬은 <표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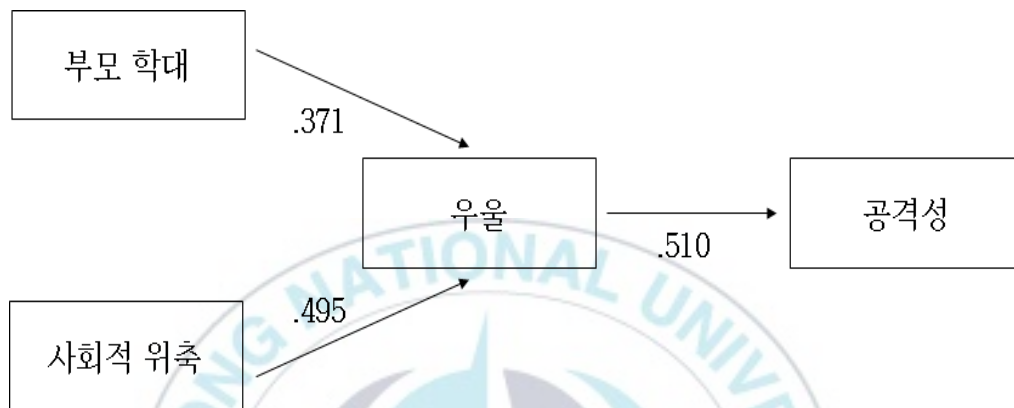
<표 IV-4> 메타분석된 상관행렬

변인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
부모 학대	-			
사회적 위축	.122* 7** 9362***	-		
우울	.345 11 14738	.521 8 17475	-	
공격성	.272 12 19876	.361 8 6418	.424 19 28392	-

*평균효과크기 **연구수 ***전체사례수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메타분석된 상관행렬을 적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원인요인,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 학대가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와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명한 모형의 선택을 위해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삭제한 후 수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수정된 청소년 공격성 경로 모형 및 Pull-path 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그림 IV-1], <표 IV-5>와 같다.



[그림 IV-1] 청소년 공격성 경로 모형(수정모형)

<표 IV-5> 청소년 공격성 모형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df	CFI	TLI	SRMR	RMSEA (95%신뢰구간)
Full-path 모형	0	1.0	-	0	0
수정모형	2	.977	.931	.064	.019 (.014~.023)

<표 IV-5>에 제시된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FI=.98; TLI=.93; SRMR=.06; RMSEA=.02(95% 신뢰구간=.014~.023)로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적 모형의 적합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도(likelihood) 기반 통계량으로 경로계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할 경우에는 경로계수의 추정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보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로계수에 대한 신뢰구간(lbound, ubound)이 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로계수의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 <표 IV-6>과 같다.

<표 IV-6> 요인간 경로 계수

경로	경로계수	95%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 학대-우울	0.371	.319	.424
사회적 위축-우울	0.495	.458	.532
우울-공격성	0.510	.474	.546

<표 IV-6>에 제시된 요인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학대-우울=.371(95% 신뢰구간=.319~.424), 사회적 위축-우울=.495(95% 신뢰구간=.458~.532), 우울-공격성=.510(95% 신뢰구간=.474~.54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요인 간 경로계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효과분해를 살펴보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의 관계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 요인들이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경로계수의 효과를 총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정리한 결과 <표 IV-7>과 같다.

<표 IV-7>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효과 분해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Lower	Upper
부모 학대					
-> 우울	.162	-	.162	.189	.217
-> 공격성					
사회적 위축					
-> 우울	.227	-	.227	.252	.278
-> 공격성					

<표 IV-7>을 살펴보면 부모 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 간접효과의 추정값은 .162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과 상한에는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결과 간접효과의 추정값은 .227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과 상한에는 0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 의

본 연구는 좌절-공격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메타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으로 채택된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청소년 공격성 간 전체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48편에서 제시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리된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청소년 공격성 모형을 설정하여 경로탐색을 통해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분석 대상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출판년도에 따른 분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편의 연구물만 있었으나,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9배 증가한 4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출판형식에 따른 분포에서는 석·박사학위논문 18편이며, 학술지 논문은 그 보다 많은 30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에서 출판년도를 먼저 살펴보면, 청소년 공격성 관련 연구가 2010년 이전에 비해 현재 9배 증가한 경향에 대해서는 2012년에 시행된 인성교육 실천의 강화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문자 상담을 할 수 있는 117신고전화 설치 등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로 시작하여 해마다 학교폭력 및 사건사고의 증가로 청소년 공격성의 중요성

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공격성 관련 연구가 청소년 심각한 공격형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선행연구(서미정,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바탕으로 청소년 공격성 관련 경로에 대한 연구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더 명확하고 다양한 변인들을 중점으로 청소년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청소년 공격성 관련 연구가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판형식에 분포에서 학위논문에는 비해 학술지 논문이 많은 연구가 진행된 점은 청소년 관련 연구자들과 학술기관에서 청소년 공격성 관련 연구를 통해 청소년 이해 및 효과적인 개입·중재를 위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효과크기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요인으로 채택된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의 평균효과 크기는 95% 신뢰구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 중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위축-우울($Zr=.521$), 우울-공격성($Zr=.424$)이며,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사회적 위축-공격성($Zr=.361$), 부모 학대-우울($Zr=.345$), 부모 학대-공격성($Zr=.272$), 부모 학대-사회적위축($Zr=.122$)순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인 사회적 위축-우울(.521)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외적인 환경 중 가정환경 변인군인 부모학대보다 사회환경 변인군인 사회적 위축이 더욱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회적 위축은 수줍음과 수동성, 불안, 긴장 등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와 과잉 통제된 행동을 만들어 부정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민서 외, 2018)와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회적 위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이나 부적절한 상황을 만들며,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좌절을 경험하게 만드는 변인임에 조기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위축이 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긍정적인 발달적 기회들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으며(이봉주 외, 2014), 이는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발달 과업의 수행 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사회적인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다각적인 개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다음으로 우울-공격성(.424)을 살펴보면, 큰 효과크기로 그 의미가 유의미하다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으로 나타내며 공격성 간의 관련이 매우 높아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김경은, 2003; 박성민, 2014).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 우울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우울을 자신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슬픔, 좌절, 무망감,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마음의 병으로 정의하고 있다(Beck, 1976; Radloff, 1977).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우울의 정의와는 상반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우울을 뜻하는 바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 진단기준은 성인의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 주요 우울증 진단기준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스러운 기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배주미, 2000). 이는 성인의 우울과 청소년의 우울이 드러나는 양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입도 달라야 될 것으로 시사된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공격성(.361)을 살펴보면, 중간정도 효과크기로 그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축된 성격은 그 자체에서 그치지 않고, 공격성에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설명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이러한 점을 볼 때 청소년기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힘이 있거나, 당당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각한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부모 학대-우울(.345)을 살펴보면, 중간정도 효과크기로 그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핵심적 정서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을 경험하게 하며, 고통스러운 외상경험은 좌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아영, 2011). 이러한 점을 볼 때 부모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우울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울한 청소년의 예측변인이자 위험요인인 부모학대를 예방의 중요성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부모 학대-공격성(=.272)을 살펴보면, 중간정도 효과크기로 그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유길준, 2018; 이영애, 2019; 정일영, 2019; 조민경, 조한익, 2019). 이러한 점은 부모행동에 대한 모델링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모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역시도 그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유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다음으로 부모 학대-사회적위축(=.122)을 살펴보면, 중간정도 효과크기로 그 의미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고, 그들의 비전형적인 태도로 인해

또래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에서 고립, 거부, 무시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봉주 외, 2014; Bowker & Raja, 2011; Bowker, Rubin, & Coplan, 2011). 이러한 점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게 되면 생애 초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핵심정서 욕구의 좌절 및 미충족을 경험하게 되어 위축되고, 위축된 아이는 자존감이 낮으며 아무도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한다고 믿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변인이나 전략을 찾을 필요성이 시사된다.

3. 청소년 공격성 관련 경로모형 검증

메타분석을 통해 계산된 주요 변인 간의 값들을 바탕으로 가설적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공격성에 간의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옥수, 최하영, 2017; 김현진, 김민, 2014;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이충권, 양혜린, 2017; 정일영, 2019)와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변인 간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두 변인 간의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또는 제3변인의 영향 때문임을 고려할 수 있다(문수백, 2009). 따라서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다른 변인을 매개로 청소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민서 외, 2018; 이아영, 2011)와 일치하는 결과다. 자세히 살펴

보면, 부모 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지만 그 중 사회적 위축이 상대적 우위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좌절이라도 가정·사회환경 변인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좌절보다 사회적인 좌절경험에 더욱 민감하다고 볼 수 있어,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인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좌절을 일으키는 외적인 환경인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제하기 전에는 영향력이 유의한 반면, 우울을 통제한 후 그 유의성이 사라지면서 우울이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의 좌절경험인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높아진 우울이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좌절-공격이론의 관점처럼 청소년들이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지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인 공격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부모학대와 사회적 위축과 청소년 공격성 사이에서 매개하는 변인인 우울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청소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 학대 및 사회적 위축을 개입을 하는 것보다 청소년 공격성을 중재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공격성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적인 성향의 학생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가정, 학교, 사회 등으로부터 따듯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을 높

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사, 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공격성 및 주요 변인들 간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나, 일부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짐에 있어 다소 적은 연구수들이 포함되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요인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연구물의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남·여, 초·중·고등학생이나 측정도구를 포함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만 기재하는 등 상관관계를 혼합해서 제시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 특성이나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즉, 주요 변인들에 대한 개념적 범위와 측정도구의 동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공격성 관련 변인들 중 대표적인 일부만 사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을 검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아 (2013). 청소년의 누적 위험 요인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9), 175-197.
- 권민정, 박주희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중학생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6(4), 71-89.
- 공미정, 이동형 (2017). 남녀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지각된 학급풍토와 괴롭힘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2), 209-234.
- 김경은 (2003). 자아개념증진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배, 손의성 (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 18.
- 김민주, 이동귀 (2018).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69-89.
- 김민정 (2012).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학교 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3, 1-28.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중학생이 경험한 학대와 방임이 학교 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5(4), 5-33.

- 김성일, 정용철 (2001).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5-28.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옥수 (2018).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과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 213-221.
- 김자영 (2014).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3), 286-316.
- 김재엽, 남보영 (2012). 신체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부모애착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3), 169-191.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춘경, 조민규 (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현진, 김민 (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97-12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문정, 강지현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8(4), 167-190.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영숙, 임안나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49, 59-85.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박애리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97-416.
- 박혜리 (2019).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 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8).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서미정 (2014).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및 추후 연구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5(2), 141-169
- 송현중, 신소영 (2014). 발산적 기법 중심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우울과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55-87.
- 신규리 (2015). 중학생 성별에 따른 지위비행의 영향요인 연구: 여가유형, 애착 및 부정정서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3, 179-205.
- 신동희, 송현주 (2016). 부모 간 양육태도의 불일치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 여아의 관계적 공격성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3(10), 1-27.
- 연은모 (2018). 부모의 교육참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진로성숙도, 인터넷 중독, 학교생활적응 간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평균분석과 다집단 경로계수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433-456.

-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우수정 (2017).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 37-51.
- 위유라, 노충래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길준 (2018).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1207-1220.
- 유성모. (2018). **R메타분석 쉽게 배우기: 프로그램 효과 검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황소걸음아카데미.
- 유현주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2), 417-446.
- 윤선아 (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887-908.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2), 85-105.
- 이수연 (2009). 미주지역 조기유학 청소년의 우울에 관련된 요인. **청소년학연구**, 16(5), 99-120.
- 이순희, 허만세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 비행경험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

사회연구, 38(4), 251-289.

이아영 (2011). **초등학생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아영, 유서구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 (KYPS) 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25-245.

이영애. (2018).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277-297.

이은아, 천성문 (2011).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지혜, 강민주 (2018).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1), 69-83.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이혜진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9), 457-483.

장용환, 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 하위 발달경로 확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 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77-197.
- 정명희 (2017). 청소년의 정서조절 요인이 공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연구. **청소년학연구**, 24(6), 205-229.
- 정익중, 이지언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일영 (2019).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58(1), 71-96.
- 정하은, 전종설 (2012).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4(1), 195-212.
- 정현임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경, 조한익 (2019). 가정학대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1), 17-38.
- 진미선 (2016).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사이버비행을 매개로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채미경, 김현숙 (2018).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10), 53-71.
- 최정아 (2014).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 최현혁 (2019).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코치-선수관계, 스포츠 분노, 그리고 공격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8(1), 83-96.
- 최현주, 신혜진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감을 매개로 비행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97-323.
- 한영주, 하창순 (2016).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805-814.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 미, 김효진. (2007). 아동학대 및 방임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6(128), 47-59.
- 홍성초, 조운오 (2019). 청소년 피학대경험과 비행 간의 관계 차이-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7(1), 67-92.
- Aronson, E. (1992). The return of the repressed: Dissonance theory makes a comeback. *Psychological Inquiry*, 3(4), 303-311.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tice-Hall.
- Baron, J. (1979). Orthographic and word-specific mechanisms in children's reading of words. *Child Development*, 50(1), 60-72.
- Beck, M. E. (1976). Discordant paleomagnetic pole positions as evidence of regional shear in the western Cordillera of North America. *American Journal of Science*, 276(6), 694-712.
- Bell-Dolan, D. J., Reaven, N. M., & Peterson, L. (1993). Depression and

- social functioning: A multidimensional study of the linkag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3), 306-315.
- Berkowitz, R. (1962). Conditions for network-element-value solvability. *IRE Transactions on Circuit Theory*, 9(1), 24-29.
- Berkowitz, L.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301-329.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2), 165.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1), 59.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McGraw-Hill Book Company.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765-785.
- Boucher, H. W., Talbot, G. H., Bradley, J. S., Edwards, J. E., Gilbert, D., Rice, L. B., ... & Bartlett, J. (2009). Bad bugs, no drugs: no ESKAPE! An update from the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48(1), 1-12.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2), 201-212.

- Bowker, J. C., Rubin, K. H., & Coplan, R. J. (2011). Social withdrawal. *Encyclopedia of Adolescence*, 32(3), 2817-2824.
- Buss, A. H. (1966). Instrumentality of aggression, feedback, and frustration as determinants of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53.
- Calvete, E., & Orue, I. (201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s a mediator between cognitive schemas and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1), 105-117.
- Carlson, J. (1987). Green's function Monte Carlo study of light nuclei. *Physical Review*, 36(5), 2026.
- Chaffin, D. B. (2006). Occupational biomechanics. *Wiley Interscience*, 21(1), 37-51.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
- Cohen, S. (1988).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US: Sage Publications.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162-170.
- Dollard, J. (1939). The dozens: Dialectic of insult. *American Imago*, 1(1), 3-25.
- Elmasry, H., Goodwin, R. D., Terry, M. B., & Tehranifar, P. (2014). Early life exposure to cigarette smok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in midlife. *Nicotine & Tobacco Research*, 16(10),

1298-1306.

- Feshbach, H. (1967). The unified theory of nuclear reactions: III. Overlapping resonances. *Annals of Physics*, 43(3), 410-420.
- Gil, D. G.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637-648.
- Gilbert, R., Widom, C. S.,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373, 68-81.
- Glass, G. V. (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10), 3-8.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 Stark, R. (1969). *Hel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2), 202-213.
- Hoekstra, R. A., Bartels, M., Hudziak, J. J., Van Beijsterveldt, T. C., & Boomsma, D. I. (2008).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stability of withdrawn behavior in children: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twin study. *Behavior Genetics*, 38(5), 447-46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n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I: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32(1), 1485-1491.
- Ladd, G. W., & Burgess, K. B. (1999). Charting the relationship trajectories of aggressive, withdrawn, and aggressive/withdrawn children during early grade school. *Child Development*, 70(4), 910-929.
- McKenzie, D. J. (2005). Measuring inequality with asset indicator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2), 229-260.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 Altman, D. G.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 264-269.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Olsen, S. R., Kemper, W. D., & Jackson, R. D. (1962). Phosphate Diffusion to Plant Roots 1.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Journal*, 26(3), 222-227.
- Orpinas, P., &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Sperry, D. M., & Widom, C. S. (2013). Child abuse and neglect, social suppor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A prospective investigation. *Child Abuse & Neglect*, 37(6), 415-42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enthal, R. (1979). The file drawer problem and tolerance for null results. *Psychological Bulletin*, 86(3), 638.
- Rubin, K. H., Burgess, K. B., Kennedy, A. E., & Stewart, S. L. (2003).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Child Psychopathology*, 2(2), 372-406.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141-171.
- Viswesvaran, C., & Ones, D. S. (1995). Theory testing: Combining psychometric meta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Personnel Psychology*, 48(4), 865-885.
- Walker, L. S., & Greene, J. W. (1991). The functional disability inventory: measuring a neglected dimension of child health statu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6(1), 39-58.
- Watson, J., & Nesdale, D.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3-4), 201-220.



청소년 공격성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 부모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을 중심으로

김 준 성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지도교수: 천성문

요 약

본 연구는 좌절-공격이론 관점에서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채택된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 우울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여 메타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변인인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정서변인인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 주요 요인들이 청소년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요인과 정서요인 사이의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공격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9년 2월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들을 메타경로분석하기 위해 R x64 3.5.3 및 R package인 metaSEM을 사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CFI, TLI, SRMR, RMSEA를 통해 추정하였다.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한 결과 큰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 사회적 위축-우울($Zr=.521$), 우울-공격성($Zr=.424$)을 나타냈으며, 중간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은 사회적 위축-공격성($Zr=.361$), 부모 학대-우울($Zr=.345$), 부모 학대-공격성($Zr=.272$), 부모 학대-사회적 위축($Zr=.122$)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 공격성 관련 주요 변인인 부모 학대,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변인 간 메타분석을 통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설명

력이 다소 상이한 결과들에 대해 상대적 우위성이나 관련성을 통합적으로 다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요인(부모학대,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해 좌절-공격이론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우울을 관리할 수 있다면 청소년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 학대 및 사회적 위축을 개입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공격성 및 주요 변인들 간의 일부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이 이루어짐에 있어 다소 적은 연구수들이 포함되는 한계가 있어 언급되지 않은 요인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연구물의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개념적 범위와 측정도구의 동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동일한 개념과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격성 관련 변인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을 검증하였다는 한계 있으므로 청소년 공격성 관련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부록1. 분석대상 논문

NO.	출판 년도	제목	출판 형식
1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2	2019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_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3	2017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 분석	학술지
4	2017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적 양육방식과 청소년 우울과의 관계: 청소년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술지
5	2018	부모의 과잉기대·간섭과 청소년의 신체화증상: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술지
6	2018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음주에 미치는 영향_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7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술지
8	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9	2014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술지
10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11	2011	부부간 폭력의 노출정도와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패널자료(KYPS)를 중심으로	학술지
12	2009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유기공포의 매개효과검증 - 남녀 청소년의 모형 비교	학술지
13	2015	실제-이상 자기개념 불일치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학술지
14	2013	우울 및 비우울 청소년에 있어서 자기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15	2018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16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17	2013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18	2012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19	2014	청소년의 공격성 및 우울과 게임이용간의 관계에서 통제의 매개모형 검증	학술지
20	2015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 증상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21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22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23	2015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이 사이버비행을 매개로 학교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24	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술지
25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6	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학교부적응 간의 경로 분석_우울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학술지
27	2016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이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학술지
28	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학술지
29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30	2015	아동기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자살행동 관계: 인지적 비유연성과 우울,특성분노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31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학교부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별, 교내동아리 활동, 남녀공학의 조절효과 검증 -	학위논문
32	201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술지
33	2010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자기존중감의 효과	학술지
34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학술지
35	2017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술지

36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37	2017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학술지
38	2016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39	2015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위축의 매개효과 분석	학위논문
40	201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자아존중감, 학대적 양육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41	2005	학대 경험에 아동의 우울불안,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42	2018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	학술지
43	2014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및 휴대전화의존도의 구조적 관계	학술지
44	2019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학위논문
45	2014	지각된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술지
46	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47	2018	사회적위축과 우울감이 청소년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48	2017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